

4: 이번 전시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전시를 ‘완성된 답을 제시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트”와 “ART”의 차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을 시작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사유가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야말로 세계의 ART 에 가장 가까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ART 는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와 가치관에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의 인식을 흔들며, 새로운 논의를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이번 전시는 SNS 를 통해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얻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히 전시 자체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 본질은, “일본의 ‘아트’ 관을 새롭게 업데이트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작품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가치관의 전환’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시장화는 나쁜 것이다”,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천박하다”라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NFT 이후, “가치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공유하게 되는가”라는 논의가 급속히 일반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이제는 부유층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자산’과 ‘가치 형성’이라는 개념에 민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장식으로서가 아니라, “왜 이 작품이 가치를 가지는가”라는 구조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ART 에는 단순히 공간을 장식하는 것을 넘어, 사회의 가치관 자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반향이야말로, “일본에서도 이제는 이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시대적 분위기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